

폴란드, 2008~2011년 산업별 민영화계획 발표내용

1. 요약

- 폴란드 정부는 740개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총 300억 즐로티의 수입을 거둔다는 4개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음. 동 계획은 금융·에너지·철강 등 주요산업은 물론 관광·의약품·식료품·인쇄·출판·목재산업 등 전 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며,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이 정부개입 및 통제강화를 통해 운용된 점과 상반되는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됨.

2. 민영화 추진 기본방향

□ 향후 4년간 740개 국영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계획

- 투스크(Donal Tusk) 총리는 4월 22일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“2008~11년 민영화 계획(Privatization Plan for the Years 2008-11)”을 발표하였음.
 - 지난 2007년 10월 총선으로 집권한 시민강령당(PO) 정부는 집권 후 6개월 이내에 향후 4개년간의 민영화 계획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.
- 동 기간 동안 1200여개 국영기업 중 740개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계획을 담고 있으며, 정치인의 국영기업 배치로 인한 폐해 및 경제부문 부정부패 근절, 공무원 이기주의 배척이 그 추진 배경임.
- 또한, 5월 19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래드(Aleksander Grad) 폴란드 국고부(Ministry of National Treasury) 장관은 상기 민영화 계획이 실행 완료되는 2011년에는 GDP 중 국영기업 생산 비중이 10%대로 하락(현재 약 20%)하고,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역할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함.

□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 기대

- 19개 국영기업은 바르샤바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계획이며, 매각대상 기업에는 LOT(폴란드 항공), 바르샤바 증권거래소, BGZ(농업은행), 발전분야 기업 등이 포함됨.
 - 주요 국영기업 중 KGHM(구리 개발업체), PKN Orlen, Lotos(이상 정유업체), PGNiG(석유가스공사)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됨.
- 그레드 장관은 정부지분 비중이 작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계획은 배당수입 보다는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으며, 이는 법과정의당(PiS) 정권이 국영기업에 대한 무리한 배당을 요구하는 등 민영화 추진에 소홀했던 점과 대비됨.
- 4년간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은 총 300억 즐로티(137억 달러, 89억 유로)로 예상(증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되며, 동 수입 중 40%는 인구통계준비 기금에 적립되어 연금개혁에 지원될 것이고, 나머지는 공산체제 기간 중 국유화된 자산에 대한 보상대금 지급, 공적채무 상환, 교육분야 재정지원에 사용할 계획임.

2. 산업별 민영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

□ 금융: PKO 등에 대해 공모 추진

- 총 13개의 국고부 관할 국영기업이 민영화 대상이며, BGZ S.A.(농업은행) 및 바르샤바 증권거래소는 공모(IPO)를 통해 상장할 계획임.
- 폴란드 최대은행인 PKO S.A.의 민영화 작업은 각료회의의 동의 후 진행할 계획이며, PZU S.A.(생명보험사)의 민영화는 Eureko B.V.(네덜란드계 보험회사)와의 분쟁 해결 후 진행할 예정임.
 - 연정 파트너인 농민당(PSL)은 PKO의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나, 야당인 법과정의당(PiS)은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능 유지를 위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임.

- PZU는 공산주의 시절 독점지위를 누리던 보험사로 현재 시장점유율은 50%에 달함. 네덜란드계 Eureko는 1990년대 말 남동부 유럽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PZU 지분 31%를 구입했으며, 유권자연대연합(AWS, 1997~2001년 집권) 정부로부터 추가 지분 구입을 통한 지배지분(controlling stake) 소유를 승인 받은 바 있음. 그러나, 2001년 집권한 민주좌파연합(SLD)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국제 중재(arbitration)가 이루어졌고 2005년 중반 Eureko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으나, 동 사안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음.

□ 전력: 발전부문을 중점으로 민영화 추진

- 지난 정권에 의해 PGE로 통합된 4개 전력회사(PGE S.A., Tauron Polska Energia S.A., Energa S.A. 및 Enea S.A.) 정부지분의 일부분을 매각하고, 동 회사의 지점은 인수(acquisition) 방식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.
- 구체적 민영화 수준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(Ministry of Economy)에 의해 결정될 예정인데, 파블락(Waldemar Pawlak) 경제부총리가 소속된 농민당은 에너지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민영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.
- 전력공급회사인 PSE-Operator S.A.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됨.

<표 1> 논의 진행 중인 에너지그룹 민영화 방안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GE: 2009년초까지 시장 유통 지분을 40~45%까지 확대(현재 30% 유통중) • Enea: 2008년 공모 (25% 증자계획) • Tauron Polska 및 Energa: 2009년 공모 <p>⇒ 민영화 수입은 발전설비 증설 및 기본설비 유지보수에 사용</p>

자료: KOTRA 바르샤바 무역관, 현지시장정보(2008.4.30)

□ 정유·가스: 민영화 추진 보류

- PKN Orlen S.A. 및 Grupa Lotos S.A.(이상 정유)에 대한 추가 민영화 계획은 없으며, PGNiG S.A.(천연가스)의 경우에도 근로자앞 자사주 판매를 제외하고는 민영화 계획 없음.
 - 이에 대해 폴란드 PWCA(Pricewaterhouse Coopers)는 전세계 정유업체가 사기업인데 반해 폴란드만 예외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국가소유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함.¹⁾
 - 또한, PGNiG는 현재 바르샤바 증권시장 상장기업이나, 90% 이상의 지분을 국고부에서 보유하고 있음. 지분의 일정부분 매각 계획이 대두된 바 있으나, 정부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 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.
- 원유의 저장 및 송유관을 통한 운송 등에 관련하는 여러 국영기업들의 통합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, 민영화 계획은 없음.
 - 관련업체(4개사): PPPP Naftport Sp. z o.o., PERN Przyjaźń S.A., Operator Logistyczny Paliw Płynnych Sp. z o.o.(OLPP), Siarkopol Gdańsk
 - 동 계획의 구체사항 및 실행여부는 국가전략 산업인 에너지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폴란드 경제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임.

□ 철강 및 비철금속: 2009년 이전 민영화 완료 계획(KGHM 제외)

- 철강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2006년까지 대부분 마무리되어 현재 6개사만이 정부소유로 남아있음. 이중 Huta Łabędy S.A.는 2008년 민영화될 계획이며, Centrozłom Wrocław S.A.의 민영화는 2009년 종결 계획임.
- 철강업 분야의 민영화를 위해 설립된 Towarzystwo Finansowe SILESIA Sp. z o.o.(철강업관련 금융협회)의 해체도 예정되어 있음.
- 폴란드 내 아연 및 납 독점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비철금속 분야에는 총 5개 국영기업이 있으며 2008년 중 4개사가 민영화될 계획임. 또한, 이중 Zakłady Górniczo-Hutnicze Bolesław S.A.를 포함하여 3개사가 공모(Public offer) 방식으로 민영화 될 계획임.
- KGHM Polska Miedź S.A.(구리광산업)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나, 그 자회사(subsidiary)는 민영화 가능성 있음.

1) Gazeta Wyborcza 보도(2008.4.23)

- 13개 금속업 관련 국영기업(주조업 및 합금이 대부분)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며, 국고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8개 국영기업도 2010년까지 모두 민영화 시킬 계획임.

□ 화학 및 석탄: 민영화 추진 가속

- 2010년 말까지 화학·플라스틱생산업 및 화학원재료 채굴업 분야 19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예정으로 Tarnów Mościce S.A.와 ZA Kędzierzyn S.A.는 Nafta Polska S.A.²⁾를 통해 민영화 추진할 계획임.
- 9개 석탄산업체를 2008~10년 중 민영화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3개사의 민영화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함. 특히, Lubelski Węgiel Bogdanka S.A.는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생산량의 2배 증대를 계획하고 있음.

□ 운송: LOT 및 PKP 등 2010년 이전 민영화 추진

- Polskie Linie Lotnicze LOT S.A.(폴란드 항공)은 2009년 2월까지 공모를 거쳐 민영화될 예정이며, PKP Intercity(여객 기차), PKP Cargo(화물 기차)도 각각 2009년 및 2010년 공모 방식으로 민영화 계획임.
- 45개 국영기업들을 2010년까지 대부분 민영화하고, 29개 지역 운송업체의 경우 지방정부에 무상 이전할 예정임.

□ 군수: 구체적 민영화 추진 미정

- 37개 국영기업이 향후 민영화 작업을 위해 Bumar Sp. z o.o.(지주회사)로 통합(consolidation)되어 있으나, 아직 민영화 계획은 없음.
- 통합에서 제외된 5개 기업의 경우 협상(negotiation)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, Zakłady Tworzyw Sztucznych Gamrat S.A.(플라스틱 공업)는 공모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임.
 - 협상방식 민영화 대상 업체: Fabryka Łożysk Tocznych-Kraśnik S.A.(롤링 베어링), Zakłady Elektroniczne Warel S.A.(전자공업), Huta Stalowa Wola S.A.(철강), Morska Stocznia Remontowa S.A. 및 Stocznia Remontowa Nauta S.A.(이상 선박수선)

2) 폴란드 정유·석유화학·항공분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 지주회사

□ 기타 제조업의 민영화 추진 계획

- 2008년 상반기 중 Gdynia 조선소 및 Szczecin 조선소의 민영화를 마치고, 2010년까지는 나머지 7개 국영 조선소도 모두 민영화할 계획임.
- 향후 4년 내에 대부분 기계업종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킬 방침이며, 이 중에는 폴란드내 선박 엔진 독점생산업체인 H. Cegielski Poznań S.A.도 포함됨.
 - 국고부는 기계업종 45개 국영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.
- 2008년 중 전자업종 국영기업들의 정부소유 소수(minority) 지분 매각을 시작할 계획이며, 2010년까지 모두 민영화 계획임.
- 2011년까지 72개 건축자재업관련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임.
- Krajowa Spółka Cukrowa S.A.(국영제당회사)를 포함하여 식료품 업계 국영기업을 모두 민영화할 계획임.
 - Silesian 보드카 회사와 Mazowiecka 보드카·효모회사의 경우, 단일 투자자를 선정하여 공동 민영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임.
- 2011년까지 목재·제지·가구(총 14개 업체) 및 섬유·방직(총 21개 업체) 관련 국영기업들을 모두 민영화 계획임.
- 인쇄·출판업의 경우 관련업체들을 모두 민영화 한다는 원칙이며 관련기업 통합이후 통합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, 개별 업체별 민영화 방식도 고려중임.

□ 기타 산업(농업, 의약품, 관광, 스파 등)의 민영화 추진 계획

- 농업관련 국영기업들은 2010년 이후 민영화 방침임.
- 2009년까지 의약품관련 11개 국영기업을 모두 민영화할 계획임.
- 관광업 종사 국영기업은 2010년까지 모두 민영화할 계획이며, 서비스 업종(무역, 기업대행 등)도 모두 민영화할 방침임.
- 국고부가 관리하는 25개 스파 업체 중 10개 업체를 2008~10년 중 민영화할 계획이며, 2008년 중 Szczawnica사 지분 20%를 매각할 예정임. 단,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다수(majority) 지분 소유를 유지할 것임.
 -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 대상을 늘려 나갈 것이나, 이는 국민 편의를 감안한 업체 분류 작업을 실시한 후 동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될 것임.

<표 2> 산업별 민영화 추진 주요 업체

분 야	업 체 명
금 융	PZU S.A., BGZ S.A., PKO S.A., 바르샤바 증권거래소, Krajowy Depozyt Papierów Wartościowych S.A.
전 력	PGE S.A., Tauron Polska Energia S.A., Energa S.A., Enea S.A.
화 학	Tarnów Moscice S.A., Kędzierzyn S.A.
석 탄	Lubelski Węgiel Bogdanka S.A.
철 강	Huta Łabędy S.A., Centrozłom Wrocław S.A., Towarzystwo Finansowe SILESIA Sp.z o.o.
비 철 금 속	Zakłady Górniczo-Hutnicze Bolesław S.A.
조 선	Gdynia 조선소, Szczecin 조선소
군 수	Fabryka Łożysk Tocznych-Kraśnik S.A., Zakłady Elektroniczne Warel S.A., Huta Stalowa Wola S.A., Morska Stocznia Remontowa S.A., Stocznia Remontowa Nauta S.A., Zakłady Tworzyw Sztucznych Gamrat S.A.
기 계	H. Cegielski Poznań S.A.
운 송	PLL LOT S.A., PKP Intercity, PKP Cargo
제 당	Krajowa Spółka Cukrowa S.A.
주 류	Śląska Wytwórnia Wódek Gatunkowych Polmos S.A., Mazowieckia Wytwórnia Wódek i Drożdży Polmos S.A.
출 판	Składnica Księgarska Sp. z o.o., Wydawnictwo Wiedza Powszechna Sp. z o.o., Zakłady Graficzne Dom Słowa Polskiego S.A., Wydawnictwo Naukowo-Techniczne
스 파	Przedsiębiorstwo Uzdrowiskowego Szczawnica
의약품	Tarchomińskie Zakłady Farmaceutyczne Polfa S.A., Warszawskie Zakłady Farmaceutyczne Polfa S.A., Pabianickie Zakłady Farmaceutyczne Polfa S.A.
관 광	Polskie Tatry S.A.

자료: 필자 정리

전문연구원 구윤정 (☎ 02-3779-6665)
E-mail : kooyj@koreaexim.go.kr